

임금체불 아우성... 검찰, 악덕업주 구속수사

광주·전남 체임 신고 200억원...곳곳 지급 촉구 시위

광주지검 추석명절 앞두고 위반 사업장 색출 엄단키로

#1. 6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0여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극락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맡은 H건설이 갖은 핑계를 대며 덤뜨트릭·크레인 기사 5명의 임금 1억9000만원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다. 추석 전에 돈을 받아 명절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2. 안근석(52) 씨는 7일부터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스토리 아파트 앞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 아파트 곳곳에 발생한

군열을 보수하는 대가로 자재값을 포함해 2500만원을 받기로 시공사인 J건설과 계약했는데, 재료값을 제외한 노임 1175만 원을 여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줄 데니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달래놓고는 올 여름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공공 숨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안씨는 또 다른 하청업체 9곳의 근로자들도 J건설로부터 40여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근로자들이 “명절이라도 쏘게 체불임금을 달라”며 사업주와 관공서를 상대로 아우성이다.

광주지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의 고향을 쥐어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악덕 사업주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위반 사업장 색출에 나섰다.

구속 수사 대상 사업주는 역대 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다수 피해자 발생 사업장 중 재산은닉, 위장 폐업, 잠적 사업주 등이다. 체불액이 억대에 못미치더라도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의로 재산을 감추는 사업주들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사업주 구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광주·고용노동청 관내) 내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6074명이며, 체불임금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 대비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318명(5.5%) 증

가했다.

신고된 체불임금 200억원 중 약 110억원(55%)은 해결된 상태로, 미지급된 90억원과 관련해서는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위해 광주 고용노동청과 함께 집중 계도에 나서고, 지자체에도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대기업(300인 이상 93곳) 등에 공사·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산 인정 및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전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추석 전 집중적 형사 조정, 압류 등 민사적 구제 절차 지원, 형사배상명령 설명 등의 제도 안내로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차장 동전교환기서 5000원 위폐 수습장

광주·목포 잇따라 발견 수사

광주와 목포의 셀프세차장에서 5000원짜리 위조지폐 수습장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광산구 신촌동과 선운동의 셀프세차장 동전교환기에서 5000원권 위조지폐 26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시 석현동의 한 세차장 동전교환기에서도 지난 4일 오후 4시에 5000원권 위폐 11장이 발견됐다.

발견된 위폐는 기계에 투입하면 정상 지

폐로 인식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배출하지만 위폐에 있는 위조 방지를 홀로그램 색상이나 종이 재질 등은 진폐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와 목포에서 발견된 위폐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폐 일련번호가 동일한 점에 미뤄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세차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위폐를 사용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위폐 제작 방식과 용의자 지문 분석 등을 위해 위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식용 전복 밀수입 교배용 판매

서해해경, 역대 쟁긴 7명 적발

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판매해 역대의 이득을 쟁긴 일당 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중국산 식용 전복을 교배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쟁긴 혐의(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조모(53)씨 등 4명과 이 전복을 밀수해 국내 양식장에 알선한 조선족 김보(7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교배용 수컷 전복 4042마리(270kg)를 1200만원에 구입,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국내 양식장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순천 봉화산 둘레길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순천 봉화산 둘레길에서 백골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순천시 조례동 봉화산 둘레길 인근 계곡에서 등산객이 백골화된 시신 한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나이나 성별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白骨화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에서 신분증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지난 7월12일 미귀가 신고된 주민 A(73)씨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및 대조를 의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추석 택배 전쟁

6일 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추석 우편물 특별수송 비상근무에 돌입한 직원들이 밀려드는 택배 상자를 바쁘게 분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지원 광주해바라기센터 개소 10년

피해자 1만48명...상담·치료 6만758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가 개소 10년 동안 피해자 1만 명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의료, 법률자문,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등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4일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2곳에 문을 연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폭력 피해자 1만48명에 대해 상담, 심리, 의료, 수사 등 6만 758건을 지원했다.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주로 하는 ‘위기지원형’, 전남대병원 해바라기센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형’ 전문치료 기관이다.

피해자 유형은 성폭력 6895명, 가정폭력 2018명, 학교폭력 276명, 성매매 216명, 아동학대 157명, 기타 486명 순이다. 전체 6만758건의 지원 중 상담지원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법률지원 28.3%, 의료지원 10.8%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유형별로는 전체 3만5053

건 중 51.2%가 전화상담으로 조사됐으며 초기방문 및 재방문 상담도 48.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자 조사 6735건 중 진술녹화는 4556건으로 67.6%에 달하는데, 의무 녹화대상(19세 미만 및 장애인) 외에도 결정적인 수사지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술녹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이후부터는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814건), 속기사 참여(830건), 국선 변호인 참여(2133건), 진술조력인 참여(204건) 등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은 심리치료 등 정신과 진료가 2497건(46.1%)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진료가 1921건(35.5%)으로 뒤를 이었다.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예전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들이 병원과 경찰서를 번갈아 다니면서 진술을 받았는데, 해바라기센터 개소 이후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권위, 여직원 성추행 의혹 전남도의회 사무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도의회 사무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6일 전남도의회와 광주여성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도의회 A 사무관이 지난해 12월과 2월 세 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성 직원인 B씨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광주여성성의전화에도 신고해 상담을 받았다.

광주여성성의전화는 이날 자료를 내고 “B씨가 직속국장과 사무처장에게 수차

례 면담을 통해 부서를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4월 원하지 않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성희롱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므로 공식사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A씨는 회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B씨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민원 처리 제대로 안한다며 세무서에서 휘발유 들고 소란



○“식당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휘발유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3분께 순천시 연향동 순천세무서에서 휘발유가 든 페

트병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

○김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이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이어서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데, 경찰은 “김씨가 휘발유를 뿌린 않았지만 불을 지르려고 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빌딩]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6층상가, 사무실 대지 218㎡ 건물 860㎡ 감평가 9억4천8백 ▶ 최저가 9억4천8백 투자추천
- ★ [토지] 광주 서구 송촌동 토지 1,661㎡ 현 나대지 원룸, 상가, 오피스텔 건축 추천 감평가 12억7천6백 ▶ 최저가 12억7천6백
- ★ [창고] 해남군 해남읍 대지 2,628㎡ 건물 1,142㎡ 저온창고 사무실 숙소포함 대로변 물류창고 적합 감평가 7억8천6백 ▶ 최저가 5억5천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 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평가 21억3천2백 ▶ 최저가 11억9천4백(56%)
- ★ [모텔] 광주 북구 신안동 대지 389㎡ 건물 1,084㎡ 신안교 사거리 인근 6층숙박시설 감평가 8억5천8백 ▶ 최저가 8억5천8백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평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1천6백 (36%) 투자추천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인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평가 8억7천7백 ▶ 최저가 4억9천1백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평가 15억 ▶ 최저가 10억5천4백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오픈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원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스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